공명정대(公明正大)한 최고경영자(CEO)

김 만 섭
사) 한국오리협회장

한국오리협회 회장직을 맡아 이끌어 온지도 벌써 8개월이 넘어 서고 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회원 간에, 분과위원 간에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 서로 간에 곡해, 오해, 편파성과 피해의식 등이 상존하여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점이었다. 더 나아가 서로 간에 신뢰성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종종 목격하곤 했다.협회 회장으로서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또한 객관적이며, 보편타당성 있게 일처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젊은 혈기로 강력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 그 점을 탐탁찮게 생각하는 회원(사)도 있었으리라는 예상은 들지만 회의 때나 사석에서 지적을 하거나 쓴말을 하면 달게 받았고, 그때그때 사과와 이해를 부탁하곤 하였다.

본인은 지금도 처음의 마음에서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협회 회장으로써 객관적이며, 공명정대하게 협회 업무를 수행하려고 한다. 이러다 보니 일부 분과위원의 협조 미약으로 업무 추진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공명정대' 이것은 비단 정치가에게만 중요한 덕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CEO나 상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한다. 한 예로서 회사의 CEO나 상사들은 직원을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그 직원의 평가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개입된다. 물론 CEO나 상사 역시 인간이기에 온전히 이성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당연히 마음이 더 끌리고 덜 끌리는 부하직원이 있기 마련일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 공정함을 갖지 못한다면 균형 잡힌 조직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좀 더 아끼는 부하직원이라 하

공명정대(公 공변할 공/ 明 밝을 명/ 正 바를 정/ 大 큰 대)란?

어원은 公平無私(공평무사)하고 밝고 바름이 크다는 뜻

마음이 공명하여 사사로움이나 편벽됨이 없이 공정하고 명백하며, 바르고 옳아서 조금도 사사로움이 없다는 뜻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개인의 감정, 선입관, 주관적 판단, 불공정한 태도 등을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모든 일에 私(사사로울 사)가 작용하면 공정성을 잃고 부작용이 생기므로 부디 公明正大(공명정대)한 平常心(평상심)을 유지하는 사회 분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나'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한 번 더 헤아려볼 수 있다면 그것은 공정한 것이다.

더라도 원칙을 무시하고 규정을 흐트러뜨리면 결과적으로 그 부하직원을 망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난 해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었다. 극(劇) 속에는 이순신이 얼마나 자신의 부하들을 사랑하면서도 냉혹하게 원칙을 고수하려 했는지가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인간적 고뇌로 힘들어했다.

어떤 업무의 평가나 상벌의 결정에 있어서 공정함을 갖지 못한다면 유능하고 훌륭한 CEO나 상사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업무 수행과 평가에는 분명한 규칙과 규정이 있으며, 그 규칙과 규정대로 상벌을 시행하고 있음을 모든 부하직원(회원이나 회원사)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하직원도 그 평가결과에 대해 납득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좀 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경우는 사적인 영역으로 가져가야지, 공적인 영역에 그 친분을 개입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너무 원칙을 강조하다 보면, 때로는 오히려 좀 더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사람의 비난을 사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칙을 준수하고 규정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 주고, 그 규정 속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조언을 해주면서 풀어야 할 새로운 숙제이지, 결코 일처리의 규정을 편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협회회장으로서 본인은 모든 일처리를 이러한 자세로 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한국오리협회의 회원(사)들이 서로의 양보와 타협으로 Win-Win을 기대하면서.....